

효율적인 국방사이버심리전 수행방안

이 기 중*

요 약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비롯된 정보화 흐름은 안보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 하였으며, 미래 전장 환경은 정보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이버 심리전은 정보전의 한 형태로,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심리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며 전통적 심리전 영역과 사이버 공간의 결합된 독특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21세기 역동적 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심리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효율적 국방사이버심리전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현존하는 최대 안보위협요인인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테러 등최근 대두되고 있는 우리 국민과 국익관련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한 사이버심리전 전개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Alternatives of Cyber Psychological Warfare of Republic of Korea

Ki-Joong Lee*

ABSTRACT

As a new facet of international security realm in 21C, Information Warfare(IW) has risen new way of warfare and demonstrated its efficiency in battelfiel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deed,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future of IW. While there are a lot of discussion on the clear concep of IW, it is clear that IW has the factor of psychological warfare, so-called cyber psychological warfare. Considering the security enviornment of Republic of Korea(ROK), the cyber psychological warfare has the significant importance for national security. While it has to deal with the cyber psychological warfare of North Korea, it also try to cope with the various threaten of international conflicts to protect Korean people and national interest.

Key words : Cyber Psychological Warfare, Information Warfare

* 경기대학교 정보보호학과

1.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통신 상의 편리함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안보 영역에서도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전쟁수행방식과 전략적 사고의 변화인 정보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의 사이버 환경은 정보전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산인 반면, 정보보호 등의 올바른 보안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적대 세력에게 자신들의 안보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략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급격히 전장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오늘날의 미래전 환경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전과 그 일환으로써의 사이버 심리전을 살펴보고,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개괄적 개념과 실제 사례들의 고찰을 토대로 이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 정보전과 사이버 심리전

2.1 정보전

최근의 전장 환경은 소모전에서 기동전, 지휘통제전을 거쳐 정보전으로 변화하고 있다[1]. 정보전은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적대 세력에 대한 핵심 정보를 파악, 대처함과 동시에 원거리 초정밀타격 등을 통해 적의 저항 능력과 의지를 무력화 시키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입체적 전쟁 능력의 배가를 의미한다. 적의 의도와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목표 대상을 정확히 공격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접근은 걸프전

과 이라크전에서 미국의 압도적 승리로 증명된 바와 같이 차세대 국가 안보를 좌우할 핵심 과제이다.

정보전의 등장과 함께 많은 전문가들은 보다 통합되고 통일적인 정보전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보전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진 개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는 해당 전문가들의 관심도와 영역에 따라 정보전에 대한 개념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전의 개념 정립과 관련하여 美 리비키(Martin C. Libiki)의 주장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전을 그 특징과 목적 별로 민·군 영역을 망라하여 상세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2]. 여기서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은 정보를 활용하여 사람의 의지와 행동을 심리전을 수행하는 쪽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으로 적 국민에 대한 對의지(Counter-Will), 적국에 대한 對군(Counterforces), 적 지휘관에 대한 對지휘관, 그리고 문화 충돌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문화전쟁(Kulturkampf) 등으로 분류된다.

2.2 사이버 심리전

일반적으로 심리전이란 ‘국가정책의 효과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체측 외의 모든 국가 및 집단의 견해, 감정,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전 및 기타 모든 활동의 계획적 사용’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ibiki는 자신의 분류에서 정보전의 심리전적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공간 등이 수반되는 정보전 과정에서 적대세력의 인식이나 여론 등을 아측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심리전이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정책의 효과적 달성을 목적으로 주체측 외 모든 국가 및 집단의 견해, 감정,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전 및 기타 모든 활동의 계획적 사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되는 심리전’인 것이다.

사이버 심리전은 정보전의 일반적 속성 이외에 그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이메일 발송, 블로그·홈페이지 운영, 댓글달기 등 사이버 공간상의 수단들이 활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 밖에 없으며, 심리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력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 컨버전스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상의 심리전은 유무선의 통합·통신과 방송의 융합·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라는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해 기대이상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이 지닌 ‘양방향 통신’ 역시 사이버 심리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 내에서는 히트·접속 수 파악 등을 통해 심리전 콘텐츠의 영향력 여부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은 물론, 댓글 등을 통해 목표 대상자들의 평가나 반응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1인 사이버 심리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전의 특성상 소수의 인원과 적은 비용으로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인적·공간적 은폐가 용이한 점도 매우 중요한 속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향후 사이버 심리전의 영역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화가 발전한 국가나 사회일수록 적대세력의 정보전 공격, 특히 사이버 심리전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인력과 조직 예산이 부족한 테러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들에게는 사이버 심리전은 매우 효과적인 신무기이다. 따라서 사이버 심리전을 논함에 있어 공세적 측면과 대응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 접근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이버심리전의 독특한 특징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철학적 법적 관련 문

제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이버심리전 수행 교리의 정립이다. 그 이유는 민간주도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사이버심리전 환경과 수행전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전장(Battle field) 역시 민간영역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재래전에서의 심리전은 비교적 전장과 대상이 명확하였으며 물리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는 민간영역에 대한 진입통제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사이버심리전의 경우 그 구체적 전장을 한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실제 인터넷 공간은 가장 효과적인 사이버심리전 수단이자 전장이지만 분명 민간영역의 주도권이 상당하고 이를 통제할 기술적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사이버심리전 전개과정에서 고의 혹은 실수로 인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통제, 혹은 정치개입 등 민주사회에서는 철저히 통제되어야 하는 부작용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는 이러한 부작용들은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사회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자칫 적대세력 등으로부터 현존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도덕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므로도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효율적 국방 사이버심리전 수행 방안

3.1 국방사이버심리전 수행 환경

현재 우리의 국방사이버심리전 수행 여건은 사회전분야의 급격한 정보화 추세와 탈냉전 시대의 안보환경이 결합되어 매우 역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우선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IT국가로서 기술력 수준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정보화 추세는 정보의 신속한 처리와 전달이라는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사이버 테러 등의 정보전적 공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또한 안보적 측면에서의 주변 환경 역시 매우 복잡하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같은 분명한 적국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21세기 글로벌시대의 특징인 안보영역 확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최근까지 북한은 경제력 등 국력 열세에 따른 재래식 전력의 불균형을 만회하기 위해 소위 비대칭 전력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손꼽히는 핵문제야 말로 재래식 전력의 불균형을 일거에 만회하기 위한 의도의 결과임에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보전 특히 사이버심리전 분야는 그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효율적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방송, 전단 등 전통적인 심리전에 비해 사이버심리전은 소요 예산이나 병력 등 투입 비용이 저렴하며, 그 파급 범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체제수호를 위해 북한사회와 외부네트워크의 철저한 차단을 통해 사이버심리전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인 반면 국가기반 전반이 IT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사이버심리전은 분명 북한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이버 공간이 상당히 자유롭고 계층 그리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회적 분출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에게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심리전 적 활동을 강화시킬 유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다른 역동적 요소는, 탈냉전 시대의 특징 중

하나인 안보개념의 확대와 안보목표 다양화현상이다. 전통적인 정치 군사적 안보영역이 여전히 중시되는 가운데 과거 이념적 대결구도가 와해된 반면 경제, 에너지, 환경, 종교 등 다양한 요소들이 안보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9.11사태 이후 세계질서 안정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테러문제를 비롯 중동 지역을 둘러싼 종교적 대립과 에너지 확보 경쟁 등 세계 각 국의 안보목표는 꾸준히 다양화 되고 있으며 세계화 정보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인 시공간 개념을 초월하여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국가 안전보장 활동의 개념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안보환경의 변화에서 우리의 현실도 예외일 수 없다. 지난해 아프칸 인질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우리의 세계 진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분쟁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이자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세계질서 안정을 위한 소위 평화유지군 활동이 지속 활성화 됨으로써 우리 군의 국방 사이버 심리전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는 보다 적극적인 사이버심리전 수행과 효율적 전략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버심리전의 전통적인 공세적 방어적 패러다임은 물론 사이버공간의 특수성과 IT기술의 발달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적 접근, 그리고 안보영역 확대에 따른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3.2 북한의 사이버심리전과 대응방안

북한군은 정보전을 ‘우사시 모든 첨단정보기술, 장비들을 총동원하여 적의 1차적 전자 정보전 공격능력으로부터 아군의 지휘자동화 능력, 명령 지휘 통신체계를 보존하고 적의 상응한 능력을 파괴하며, 아울러 전쟁수행의 모든 목표들을 성과적으

로 달성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전투작전 형식'이라고 정의하고 정보전 수행능력 배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3].

이와 더불어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신사고'를 주창한 이래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하였고, 2002년 공동시설에서는 '정보기술과 정보 산업발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며 IT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4].

당초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정보전 트렌드가 대두됨에 따라 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1999년 미국은 북한이 미국방성 인터넷 사이트에 가장 많이 접속한 국가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효용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북한은 당초의 군사적 목적에서 탈피하여, 체제 선전 및 경제 수입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일본 서버를 이용하여 개설된 '조선통신', 조총련이 발행하는 반월간지 '인민조선'의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People's Korea', 그리고 영문 사이트인 '평양 타임스' 등은 내부 소식을 외부에 전파하는 동시에 체제 우월성을 홍보하는 대표적 사이트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리랑 공연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설한 '아리랑 특별사이트', 일본관광청과 협조 하에 개설한 '조선관광'은 물론 2003년 개설된 영문 전자상거래 사이트 '천리마그룹' 등은 북한이 인터넷을 경제수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터넷 사이트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은 지난 1997년부터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인 우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1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들의 친북통일투쟁 활동을 한글과 영문으로 상세히 선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북한 중앙TV 로동신문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호기심에 접속한 네티즌들이 웹 콘텐츠를 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북의식화 될 수 있는 심리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3년 개설된 북한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표적 대남 심리전 사이트라 할 수 있다. 한국내 친북 세력 확산에 목적을 둔 이 사이트는 구성과 내용면에서 포괄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상에서 북한을 총체적으로 알리고 선전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은 방어적 측면과 공세적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방어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왜곡된 선전 내용이 국내 친북단체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된다면 사상전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심리전적 성격이 강한 해외 친북사이트 42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국내 사이트에 게재한 친북 게시물에 대한 삭제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사이트 차단은 프록시 서버 등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현실 속에서 완벽한 해결책 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댓글공화국'으로 불리울 정도로 활발한 국내 인터넷 환경 속에서북한의 선전주장을 교묘하게 포장한 북한 사이버심리전 부대원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차단 등 최대한의 기술적 규제는 지속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친북여론 전달 구실을 하는 국내 위해 사이트에 대한 감시는 현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내 북한 사이버심리전 차단을 위한 가장 궁극적 방법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올바른 국가관의 정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공세적 측면에서 볼 때도 남북한의 비대칭적 성격은 여전하다. 우리의 사이버 공간이 북한의 효과적 목표대상이 되는 반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북한의 사이버 환경은 공세적 대북사이버심리전 전개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극

히 제한된 기득권층만이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반인들은 인터넷 개념의 ‘광명성’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내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세적 개념의 사이버심리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북한의 극소수층이라 하더라도 일부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점진적인 체제개방이 결국 인터넷 개방 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세적 분야에 대한 접근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공세적 대응방안은 우선 사이버공간내 접근 가능한 제한적 대상, 예를 들어 해외거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 사이트 운영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는 탈북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심리전측면을 넘어서 인권차원에서라도 북한 당국에게 인터넷을 개방토록 촉구하는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국경없는 기자회’는 북한을 ‘인터넷의 적국들’(Enemies of Internet)로 규정하고 인터넷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북한내 인터넷 개방을 촉진하는 지속적 활동이 요구된다.

3.3 분쟁해결 사이버심리전

사이버심리전 분야에서 언급되는 분쟁이란 테러를 포함, 우리의 국익손실과 국민들의 안위에 위협요소가 발생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것으로 평화유지활동 등 군사적 활동이 수반되는 상황이 포함된다. 실제 최근 테러와의 전쟁 파급효과로 발생한 중동지역내 우리 국민들의 피랍 사태와 평화유지 활동 중인 우리군에 대한 물리적 공격 등은

변화된 안보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소위 위험지역에서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국지적 혹은 저강도 분쟁해결에 있어 사이버 심리전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차례 증명된 바 있다. 보스니아 사태 당시 현지 주민들은 물론 다국적군 등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주요 매체로 인터넷을 활용한 바 있다. 특히 테러 등 주요 분쟁의 주체들이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들로 자신들의 군사적 경제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세력규합 및 주요 통신 수단, 선전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국방심리전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분쟁 형태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잠재적 위협 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긍정적 여론을 환기하고 우호적 이미지를 확산으로써 우리 국민은 물론 군사작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어느 지역이건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의 접촉면이 넓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우리 문화 등을 활용한 연성접근(Soft approach)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일단 테러, 납치 등 분쟁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상 지역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은 분쟁행위의 부당성과 비도덕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안정적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함께 분쟁상황이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국제적 여론 조성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쟁해결 사이버심리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세계 각 지역내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탐지하는 정보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이버심리전 속성상 대상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마련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평화유지활동 등 군사작전 실행 지역에 대해서는 과전군과의 유기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적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요건으로 제기된다.

4. 결 론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비롯된 정보화 흐름은 안보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사이버 심리전은 정보전의 한 형태로, 전통적 심리전과 달리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심리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최첨단 심리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광범위한 파급효과 등으로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사이버심리전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에 따라 그 영역이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으며, 양방향성 특징과 1인 사이버심리전 전개 등이 가능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통적인 전장(Battle Field)과 달리 민간분야와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명확한 교리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국방 사이버심리전 환경은 북한이라는 분명한 적대세력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탈냉전 시대의 안보개념과 목표의 확대가 공존하는 매우 역동적 상황이다. 따라서 효율적 국방심

리전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 현존하는 최대 안보위협인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을 차단함과 동시에 공세적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공간내 선전활동 차단을 지속 시행하는 가운데 비대칭적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공세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테러 납치 등 지속 발생하고 있는 세계 각 지역의 우리 국익과 관련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 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물론 분쟁발생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 전개를 위해서는 정보의 통합적 수집 및 현지 언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허태회, 이상호, 장노순, “21세기 현대 정보전의 실체와 한국의 전략과제”, 제10권, 제2호, 세종연구소, 2004.
- [2] Martin C. Libiki, “What is Information Warfare?”, Strategic Forum, No. 28, May, 1995.
- [3] 김홍광, “북한의 사이버 정보전 실태”, 북한, 2006.
- [4] 남성욱,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 한울 아카데미, 2002.
- [5] 고경민, “북한의 인터넷 전략과 개방 전망”, 제40호, 통일문제연구, 2003.

이 기 중

- 1996년 연세대학교 사학과 (문학사)
 2004년 런던대 킹스칼리지 전략학과 (문학석사)
 2005년 경기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박사과정)